
국어 **잘** 푸는 **알** 고리즘

「비문학」

저자의 말

반갑습니다. 유성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수능 국어 전자책을 내게 됐네요.

수험생 시절, 국어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한 기억이 남습니다. 국어 때문에 재수를 했거든요. 아무리 공부해도 국어는 당최 성적이 오르지 않았습니니다.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재수하는 한 동안은 국어 공부가 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만 봤습니다. 여러 인강도 들어보고, 국어 잘하는 학생들의 의견, 심지어는 읽기 교육에 대한 논문까지 살피면서요. 결과적으로 그 시간들이 지금 제 국어 공부 방법의 많은 기반을 마련해주었죠.

올바른 공부 방법은 터득하고 나니 성적은 급상승했습니다. 가장 애먹이던 국어가 효자 과목이 되어 대학 입학에 큰 도움을 주었죠. 그 후 저는 저와 같이 국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르비에 수능 국어 관련 팁, 칼럼들을 올리게 됩니다. 또, 오프라인에서는 여러 과외 수업들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경험은 거듭하며, 또 대학에서 국어 교육을 심화 전공하며 방법론은 구체화되었습니다.

오르비에서는 의외로 꽤 많은 분들이 저의 글들을 좋아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오르비언 분이 칼럼들을 정리하여 책을 내면 어떨까 하시더군요. ‘그것도 좋겠다!’ 하며 시험삼아 전자책을 준비해보았고, 이게 작년 3월 즈음에 국잘알 2021 ver이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이 때에는 아무래도 빠르게 책을 내려다보니 ‘이 책으로 공부해라!’ 보다는 ‘팁은 정리해놔다! 참고해라!’ 식의 라이트한 가이드북 성격이 짙었어요.

올해 나오는 국잘알 2022는 작년 국잘알과는 꽤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이번년도 국잘알은 책 집필에 투자할 시간이 훨씬 많았고, 조금 더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었죠. 독해&풀이 알고리즘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설명을 풀어썼고, 이에 따라 조금 더 정교한 독해법&풀이법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를 훈련할 수 있는 예시도 많이 늘렸구요! 조금 더 친절한 책이 됐다 할까요? 물론, 전자책으로서 시중에 출판되는 종이책보다는 훨씬 컴팩트한 느낌을 유지하려고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무래도 전자책이 종이책보다 무거우면 부담스러운 테니까요
ㅎ

책의 특징

그럼, 이 책의 전반적 특징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빠르다

버려지는 내용 없이 알찬 내용들로 짝 채우기 위해 애썼습니다. 단기간 내에 빠르게 비문학 영역에 대한 기본 지문 독해 & 문제 풀이 방법론을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 빠르지만, 확실하다

이 책은 책의 이름처럼 수능 국어 문제를 잘 푸는 ‘알고리즘’을 다루는 책입니다. 여기서 굳이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알고리즘에는 ‘행동 방법’과 ‘수행’만이 있을 뿐, 애매모호한 ‘감’적 사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어를 풀 때 이 ‘감’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제멋대로 글을 읽고, 제멋대로 문제를 풀어, 제멋대로 성적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책에 제시되는 알고리즘을 제대로 체화하면 ‘감’과는 멀어지고 ‘안정적인 고득점’에 가까워지실 수 있을 거예요.

셋. 확실하지만, 쉽다.

시중에는 국어 방법론이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본질’이라는 이름을 표방하여 과도하게 추상적이고 장황한 내용이거나 도저히 학생 수준에서 따라할 수 없는, 그걸 필요도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배운 때는 마치 대단하고 엄청난 내용이 배운 것 같지만, 막상 실제 스스로 문제를 풀 때면 눈앞이 캄캄하게 되죠. 결국 긴장되는 수능 시험장에서선 그냥 습관처럼 막 읽게 되고, 대충 비벼가며 답을 고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국잘알은 다릅니다. 국어 영역의 본질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실전 행동강령 제시’에 더 집중하였습니다. 이 행동강령(알고리즘)을 따라가다 보면, 지문 독해가 무엇인지, 문제 풀이가 무엇인지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반복하다 보면, 빠른 문제 풀이 속도까지 얻어낼 수 있을 거구요.

국어 영역

책의 학습 방법

책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① 알고리즘 설명 부분
- ② 확인 문제 (+ 예시 답안)

알고리즘 설명 부분에서는 알고리즘의 단계 별로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제시해두었습니다. 알고리즘 워크북에는 알고리즘의 단계 별로 해야 할 생각과 행동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예제들을 실어 놓았습니다.

책을 풀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계별로 알고리즘 설명을 읽고 해당 단계에 해당하는 확인 문제를 바로바로 푸세요. 설명 부분 별로 해당하는 확인 문제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2. 확인 문제를 풀 때는, 가능한 지금까지 배운 알고리즘을 모두 적용하며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가령 알고리즘 3 단계에 해당하는 워크북을 풀 때에는 이전에 배운 1단계, 2단계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누적 복습·누적 적용을 해야 알고리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채점 역시 하나의 문제를 풀 때 마다 바로바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발생한 오류를 바로 고쳐내야 그 다음 문제에서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4. 예시 답안에 실린 답들은 말 그대로 예시일 뿐입니다. 꼭 이것만이 정답이 아닌 경우가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5. 이 책은 최소 2회독 이상 해야 합니다. 끝까지 읽고 난 후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책이 제시하는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6. 이 책이 끝나고 나면 알고리즘을 훈련하기 위해 최소 10개년 기출을 풀어봅시다. 그 이후에는 사설 문제까지도 풀어봅시다. 알고리즘을 훈련하는 방법은 다음 5~7p '수능 국어 학습 방법'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국어 영역

I. 수능 국어 학습 방법

O. 수능 국어 학습 방법

- ▶ 국어 고득점을 위해 갖춰야 할 네 가지
- ▶ 국어 영역 3단계 공부법
- ▶ 기출 해설 쓰는 법

II. 비문학 독해 알고리즘

1. 세부 정보 처리

- ▶ 끊어 읽기
- ▶ 정보 관계 번역
- ▶ 당위성 납득

2. 핵심 정보 추출

- ▶ 핵심 화제 서술
- ▶ 대비적 서술
- ▶ 강화적 서술

III. 문제 풀이 알고리즘

3. 선지 OX 판단

- ▶ 선지 정보 관계 번역
- ▶ 추론과 서지
- ▶ 유형별 접근 전략

4. 문제 검토/분류

- ▶ 정답 확인하기
- ▶ 문제 분류하기

수능 국어 학습 방법

- ▶ 국어 고득점을 위해 갖춰야 할 네 가지
- ▶ 수능 국어 3단계 공부법
- ▶ 기출 해설 쓰는 법

“수능 국어,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국어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야.
열심히 공부하는 ‘척’만 했거나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공부한 거지.

수능 국어를 올바르게 공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체 무엇일, 어떻게 공부해야
효율적으로 수능 국어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자.

국어 영역

국어 고득점을 위해 갖춰야 할 네 가지

수능 국어 만점을 위해 갖춰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어.

- ① 선행 지식 ② 지문 독해력
③ 문제 풀이력 ④ 실전력 +) EBS

① **선행 지식(기본 지식)**이 일단 있어야 해. 기본적인 어휘력이 없으면 문장 이해를 못 하겠지? 문학·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면 관련 선지도 판단할 수 없겠지? 수능이 아무리 지식을 거의 묻지 않는 ‘능력 시험’이라지만, 최소한의 지식이 없으면 절대 고득점을 할 수 없어.

② **지문 독해력**은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에서 필자가 전달하는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이야. 결국 수능 국어는 대부분의 문제가 지문을 ‘잘’ 읽었는지 확인하는 문제에 불과하니,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지. 기본적으로 독해력이란 건 어릴 때부터 축적된 다양한 독서 경험에서 비롯돼.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독서 경험이 별로 없잖아. 괜찮아. 지금부터라도 그 경험을 축적시키면 되니까. 수능에 최적화된 독해 방법으로 수능 기출 지문을 섭렵해나간다면 빠르게 독해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야.

③ **문제 풀이력**은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능력이야. 결국 대부분의 문제가 지문을 잘 읽으면 해결할 수 있긴 하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문제 풀이력이 있어야 해. 지문의 핵심 정보(주제)를 끌어와 정답 선지와 연결시켜 판단하는 훈련을 하다보면 문제 풀이력도 빠르게 신장시킬 수 있을 거야.

④ **실전력**은 긴장과 압박감이 있는 실전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야. 모의고사에서 고정 일등급이 나오다가 수능에서 갑자기 미끄러지는 학생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게 국어 시험이거든. 평소에 아무리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더라도 수능 날 하루에 못하면 의미가 없어. 대학은 모의고사 성적을 반영하지 않거든. 시험이 가까워 올수록 실전력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해. 최대한 모의 실전 경험을 하며 수능 날 벌어질 모든 경우의 수를 최대한 대비하다 보면, 실전력 역시 끌어올릴 수 있을 거야.

추가로 여기서 더 공부할 게 있다면 EBS 정도야.

2022학년도부터 간접 연계 50%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아예 무시할 수 없어. 어쨌든 간접적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평가원 기출로 위 기본적인 기반을 쌓고, 교육청·사실 기출·EBS로 훈련한다면 가장 이상적이야.

국어 영역

국어 영역 3단계 공부법

수능 국어는 오답의 원인을 분석하고 극복하는 게 어려워. 내가 왜 그 문제를 틀리게 된 건지 이유도 알기 힘들고, 극복해내기도 쉽지 않아. 그러다 보니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똑같은 이유로, 똑같이 틀려, 똑같은 점수가 나오기 마련이지.

다음 <3단계 공부법>을 따라가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차근차근 단계별로 공부하여 <수능 국어 만점을 위해 갖춰야 할 것들>을 갖춰가면서,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확실한 공부를 해보자.

1단계. 선행 지식 쌓기

일단은 수능 국어 관련 어휘 책을 하나 사서 공부하도록 하자. 또는 모르는 어휘가 나올 때마다 사전을 찾아 정리하자. 수능 수준의 어휘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수험 생활하는 동안 계속해서 골머리를 앓게 될 거야.

그 다음으로 고전 문학 작품 공부가 필요해.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출제되는 작품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적이고, 이에 따라 주제나 표현 방법 등도 계속 반복돼. 한 번 확실히 잡아두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야.

그 다음엔 영역별 지문 독해와 문제 풀이의 전략 및 방법을 세워야 해. 물론 전략을 안다고 바로 독해력과 문제 풀이력이 높아지는 건 아니야. 능력은 스스로 직접 문제와 부딪혀보며 기르는 거니까.

문학/문법 개념어도 공부해두자. 기본적으로 평가원 기출 선지에 나오는 '대화체, 독백체' 등의 의미는 알고 있어야 해. 마찬가지로 문법 선택자의 경우 '어근, 어간' 등의 의미는 알고 있어야 해.

선행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최대한 압축적으로 빠르게 끝내는 게 좋아. 어차피 지식이라는 건 한 번에 입력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머릿속에 각인되는 거거든.

2단계. 독해력/풀이력 늘리기

선행 지식을 쌓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을 풀며 독해력과 문제 풀이력을 길러야 해. 그런데 단순히 기출 문제를 풀기만 하는 건 비효율적이야. 오답의 이유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양치기만 하게 되니까.

그래서 해설을 써야 해. 해설지처럼 지문을 요약해보고 선지를 정/오답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써보자. 강제적으로 본인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과정을 쓰게 될 거야. 만약 문제를 틀렸다면 본인이 쓴 것을 통해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한 건지 분석할 수 있겠지. 이를 토대로 반성하다 보면 점점 오답 개수가 줄어들 거야.

3단계. 실전력 늘리기

실력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면 '실전력'을 올리자. 시간의 압박을 받으며 교육청 모의고사, 사설 실전 모의고사, EBS 연계교재 등 새로운 문제들을 시간제한을 두고 계속 풀어보자. 이렇게 모의 실전 경험을 하다 보면 수능날 긴장한 상태에서도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야.

물론 3단계 공부를 할 때도 2단계 평가원 기출 공부를 완전히 놓아서는 안 돼. 결국 사설은 사설일 뿐, 수능은 평가원이 출제하는 시험이니까.

< 요약 >

1단계. 선행 지식 쌓기

- ✓ 수능 국어 어휘 책 공부하기
- ✓ 고전 문학 작품 공부하기
- ✓ 지문 독해 방법 공부하기
- ✓ 문제 풀이 방법 공부하기
- ✓ 문법 개념 공부하기

2단계. 독해력/풀이력 늘리기

- ✓ 평가원 기출 해설 쓰기

3단계. 실전력 늘리기

- ✓ 사설문제 양치기

국어 영역

기출 해설 쓰는 법

기출 해설을 쓰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돼.

① 지문 읽기

일단 지문의 문장들을 꼼꼼히 읽고 정보들을 납득·이해해보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 정보 처리>단원에서는 배우게 될 거야.

② 지문 요약하기

지문을 다 읽었다면 지문의 내용을 깔끔하게 요약해보자. 결국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선 문제 풀이에 이용될 정보들을 머릿속에 담아가는 거거든.

이때 지문의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해야 하는데, 핵심 정보를 뽑아내는 방법은 <핵심 정보 추출>이라는 단원에 서술해두었어.

③ 발문 및 <보기> 분석하기

선지의 OX를 판단하기 전에 문제를 어떻게 풀지 설계하게 되는 단계야. 책에 문제의 <유형별 접근 전략>을 제시해두었어. 이 방식을 토대로 발문과 <보기>를 분석해보자.

④ 선지의 OX 증명

선지의 OX를 판단해보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써보자. 역시 이 책에 제시된 선지 판단 방법을 활용하면 돼.

⑤ 오답 분석 및 반성

결국 틀린 이유(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면 성적은 오르게 되어 있어. 해설서와 비교하며 자신이 지문 요약을 제대로 했는지, 발문 및 <보기> 분석을 잘했는지, 적절한 근거로 선지를 판단했는지 확인해보자. 그리고 사고교정을 해나가자.

Q. 도저히 해설을 못 하겠는 지문이나 문제는 어떡하나요?

지금 실력으로는 풀어나가지 못할 지문이나 문제가 분명 존재할 거야. 최대한 고민을 해보되, 너무 힘들면 일단 별표 해두자. 나중에 실력이 늘고 2회독을 할 때 다시 도전해보는 거야.

아래 지문과 문제를 해설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 만약 어떤 명제가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 언급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되며, 그것에 대해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1. 위 글의 '의미 없는 명제'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곰팡이는 생물의 일종이다.
- ② 물은 1기압에서 90℃에 끓는다.
- ③ 피카소는 1881년 스페인에서 태어났다.
- ④ 우리 반 학생의 절반 이상이 헌혈을 했다.
- ⑤ 선생님은 한평생 바람직한 삶을 살아왔다.

[지문 요약]

- ┌ 의미 있는 명제 =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는 명제
- └ 의미 없는 명제 =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는 명제

[발문 분석]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는 명제를 골라야 한다.

[선지의 OX 증명]

- ① 참, 거짓을 따질 수 있음
- ② 참, 거짓을 따질 수 있음
- ③ 참, 거짓을 따질 수 있음
- ④ 참, 거짓을 따질 수 있음
- ⑤ 참, 거짓을 따질 수 없음 '바람직하다'는 주관적인 판단!

비문학 독해

알고리즘 -1. 세부 정보 처리

- ▶ 끊어 읽기
- ▶ 정보 관계 번역
- ▶ 당위성 납득

“국어는 항상 정답에 확신이 없어요.”

수학과 달리 국어 문제는 ‘대충 맞겠지’ 하며 푸는 경우가 많아.
채점하고 나면 여기저기 어이없이 틀린 문제가 많지.

이는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히 읽지 못해서 벌어진 문제야.
한 문장 한 문장만 제대로 읽어도 모든 문제는
아주 논리정연하게 해결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읽어야
한 문장 한 문장들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까?

국어 영역

당위성 납득

독해 고수와 독해 하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독해 고수는 지문을 읽을 때 '무슨 소리일까?' '왜 그럴다는 거지?' '이건 이거고, 저거는 저럴다는 거네.' '그럼 당연히 ~겠네'하며 적극적으로 정보를 곱씹으며 이해하려 해.

독해 하수는 지문을 읽을 때 '아, 이거 무슨 소리야.'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아 인생 X같다!' '아.. 읽기 싫네..' '자고 싶다..'는 식으로 글을 튕겨내지.

독해 고수 - 적극적으로 사고해 이해하려 함
독해 하수 - 그딴 거 없고 그냥 머리에 욱여넣기

글을 아무리 꼼꼼하게 읽어도, 능동적으로 생각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보는 먼지처럼 흩어질 거야.

신체의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식을 실시한다. 이때 이식으로 옮겨 붙이는 세포, 조직, 장기를 이식편이라 한다.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종 이식'을 실시한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 면역 반응을 일으키므로,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에 대해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면역적 거부 반응은 면역 세포가 표면에 발현하는 주조직적합복합체(MHC) 분자의 차이에 의해 유발된다. 개체마다 MHC에 차이가 있는데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에 차이가 커져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

독해 하수의 생각: 아, 생물 지문인가? 약한데... 신체의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되면 이식해야 한다.... 일단 외워 보자. <세포, 조직, 장기 손상 시 이식> 그리고 이식하는 걸 이식편이라 한데.. 외우자. 이식하는 건? 이식편. 오케이. 자기나 일란성 쌍둥이 이식 안 되면 동종 이식해야함. 외우고...이식편 거부 반응.. 면역적 거부 반응... 면역 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주조직적..합..복합체? 유전적 거리 멀수록.. 거부반응 강해짐...아 뭔 소리야. ≪X 어렵누;;; 외울 거 너 무 많은데..? 아 정보량 너무 많은데 어케 다 외우지 ㄷㄷ

독해 하수는 정보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든 단어를 머릿속에 욱여넣으려 해.

하지만 생으로 암기하는 양에는 한계가 있어. 어떤 정보도 확실히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멘탈이 날라가 더 이상 다음 문단을 읽고 싶지 않겠지.

독해 고수의 생각: 신체의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되면 다른 걸 이식해야 한다고? 당연하지. 손상됐는데 가만히 내비둘 순 없잖아ㅇㅇ. 이식하는 거를 이식편이라 한다고? '이식편'은 이식하는 거. ㅇㅋ 알겠어.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한테 이식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식받는다고? 당연하지. 누군가한테 이식은 받아야 살 거 아냐? 내게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이식받아야겠지. ㅇㅋㅇㅋ. 같은 사람이라는 '중'끼리 이식하는 거니까 동종 이식 맞네 ㅇㅇ. 우리 몸에 다른 물질 들어오면 거부 반응? 뭐 당연. 그런데 유전적 거리가 멀어지면 주조직적합복합체? 이거 차이가 커지구나. 이거 이름이 복잡하니까 표시해놓아야겠다. 어쨌든 유전적 거리가 클수록 당연히 거부 반응도 커지겠지. 그런데 이 거부를 억제하려고 억제제를 쓰면 질병 감염의 위험성이 커진다고? 질병에 대한 거부 반응도 약해져서 그런가 보네.

반면 독해 고수는 정보를 최대한 '당연하게' 여기려 노력해(당위성 납득).

당연하게 입력된 정보는 지문에 제시된 또 다른 정보를 납득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거고, 선지를 판단할 때 바로 바로 머릿속에서 꺼내 써먹을 수 있어.

사소한 한 문장을 확실히 이해하고 가느냐 마느냐가

너의 성적을, 너의 대학을,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자.

Q.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라는 건가요? 실전에서도 그렇게 이해하면 시간 부족하지 않을까요?

정보가 너무 당연해질 때까지 이해하면 돼. '인간은 물 없이 살 수 없다'는 말은 아주 당연하지? 지문의 문장들도 이만큼 당연해져야 해.

물론, 실전에서는 힘들 수 있어. 따라서 평소에 더욱 더 시간을 들여 확실히 이해해 두어야 해. 평소에 지문의 정보를 99%이해해두어야 실전에서는 70%라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국어 영역

다음은 당위성을 납득하게 해줄

네 가지 독해 기본기야. 기본기 사용에 능숙해지면 좀 더 많은 정보의 당위성을 납득할 수 있을 거야.

① 질문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정보를 맞닥뜨렸을 때는 일단 ‘뭔 말이야?’, ‘왜?’, ‘그게 뭔데?’ 등으로 물어보자. 그리고 최대한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려 해.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P는 모순 관계이다. 그런데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위에서 ‘모순 관계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이해가 안 갈 수 있어. 왜 그렇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면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가 모순이 아니라고? 왜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해. 그리고 그 답은 스스로 생각해볼 수도, 지문에서 답을 해줄 수도 있지.

물론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바로 외우자고 접근하는 것과 질문을 통해 이해를 한두 번 더 시도해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

② 연결하기

이전에 설명한 내용이 다시 언급될 때는 이전 부분과 연결해서 이해해줘야 해.

관광객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고르면 현실성이 높다고 하고,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기대어 실제와 똑같이 표현하면 사실성이 높다고 한다.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 하이퍼 리얼리즘은 같은 리얼리즘 경향에 드는 팝아트와 비교하면 그 특성이 잘 드러난다. 이들은 1960년대 미국에서 발달하여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유파로,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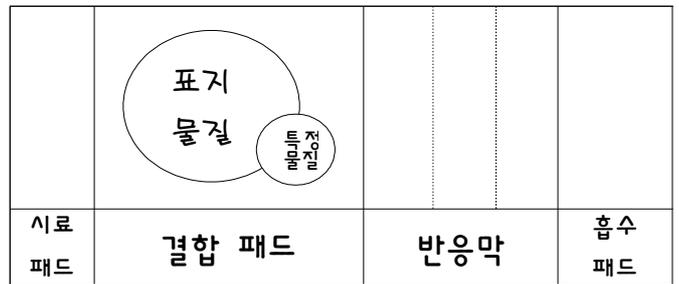
‘지칭어’나 ‘의미 반복’이 나오면 모두 앞의 해당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해. 위에서 ‘이들’이 뜻하는 건 무엇일까?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은 점’은 어떤 특성이라 했지?

‘이들’이 의미하는 것은 ‘팝아트’와 ‘하이퍼 리얼리즘’이고,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은 점’이 의미하는 것은 ‘현실성’이야. **이렇게 전에 언급된 내용이 다시 언급되면 빠르게 이전 내용과 연결지어야 해.**

③ 이미지화하기

이미지화는 **문장이 이미지를 그려줄 때 실제로 머릿속으로 그 이미지를 그려주는 거야.**

LFIA 키트는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다.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 결합 패드에 있는 복합체는 금-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 등의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그중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검사선이고 다른 가닥은 표준선이다.



윗글에서는 이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며 읽을 수 있어.

Q. 이런 생각들을 할 시간이 있나요? 시간도 부족한데 빨리 읽고 풀어야 하지 않나요?

수업을 처음 배우는 학생이 말했어.

“시간도 부족한데 빨리 개해엄치는 게 낫지 않나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야. 물론 수업을 처음 배울 때는 정자세가 개해엄보다 느려 보일 수 있어. 그러나 익숙해질수록, 개해엄보다 정자세가 압도적으로 빠를 거야. 처음에 느리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생각하며 읽는 연습을 해보자.

국어 영역

④ 메모하기

실전에서 너무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할까? 앞 뒤 맥락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된다면?

이럴 때 이해에 너무 집착하면 시험 시간 다 끝나. 몇 번 시도해서 안 되면 '닥치고 그런갑다'는 마인드로 표시를 해놓든, 지문 옆에 정보 관계 번역으로 메모하든 하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메모]

전통 논리학 : 조건 거짓인 명제 → 반드시 참
but <기차 탔다 → 지각했다> 주장X

꼭 이해가 안 가는 정보가 아니더라도, 필자가 뜬금없이 제시하는 문장이나 정보들, 별 친절한 설명 없이 그저 나열하는 정보들은 굳이 이해할 필요없이 표시or메모로 처리해도 괜찮아.

독해 하수와 고수의 차이

- 하수는 정보를 옥여넣음
- 고수는 정보가 당연하다 납득하려 함

4가지 독해 기본기를 통한 당위성 납득

- 질문하기 : 이해 안 되는 정보에 질문 던지기
- 연결하기 : 이전에 나온 내용 다시 언급되면 연결
- 이미지화하기 : 이미지 설명하면 이미지 떠올리기
- 메모하기 : 도저히 이해 안 가면 표시or정보 관계 메모

비문학 독해

알고리즘 -2. 핵심 정보 추출

- ▶ 핵심 화제 서술
- ▶ 대비적 서술
- ▶ 강화적 서술

“왜 굳이 핵심 정보를 찾아야 하죠?”

물론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완벽히 이해할 수 있다면
굳이 핵심 정보를 찾지 않아도 돼.

그럼에도 우리가 핵심 정보에 주목하는 이유는,
핵심 정보를 선점하고 나면 이를 활용하여
한 문장 한 문장을 이해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고
문제의 정답을 고르는 것도 훨씬 빨라지기 때문이야.

국어 영역

핵심 화제 서술

철이 : 준아, 여친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준이 : 그런 건 여친이 있는 애한테 물어야 하지 않을까?
 철이 : 어? 너 여친 있는 거 아니었어?
 준이 : 아니? 나 없는데?
 철이 : 있었는데?
 준이 : 아니 없다고
 철이 : 아 그니까 있었는데?
 준이 : 아니 그냥 없다고. 싸울래?
 철이 : 아~ 여친 사귀고 싶다.

위의 대화는 특정한 방향성이 없어. 그냥 떠오르는 말을 했을 뿐,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정보가 없지.

반면, 수능 비문학은 특정한 방향성을 지녀.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핵심 화제'가 있는 거야.**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먼저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것처럼, 비문학 지문 역시 이 '핵심 화제(필자의 의도) 파악'에 초점을 맞춰 읽어야 해.

대부분의 핵심 화제는 대부분 글 전체나 문단의 초반 부분에서

- ① 반복되는 내용이거나,
- ② 궁금증을 자아내는 문장으로 등장해.

여기서

반복되는 내용이란, 표현과는 상관없이 의미가 같게 반복되는 어휘/어구를 말해. 글(특히 초반부)에서 반복되는 내용은 그만큼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정보이니 집중해줘야겠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문장은 필자가 직접 질문을 던지는 문장, 얼핏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 해결이 필요해 보이는 문제 상황, 처음 들어보는 개념을 설명 없이 제시하는 문장 등등을 말해. 필자는 이 문장을 통해 독자가 해당 정보에 주목해주시기를 바라지.

반복되는 내용

(동일한 '의미'의 어구/어휘가 반복)

궁금증을 자아내는 문장

(필자의 질문, 얼핏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 해결이 필요한 문제 상황, 모르는 개념을 설명 없이 제시)

다음 글을 볼까?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윗글은 지문의 초반부야.

'반복'과 '궁금증'. 이 두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 핵심 화제를 잡아보자.

이 문단에서는 '신채호', '투쟁', '연대'라는 **내용이 반복**되며 끝부분에서는 투쟁과 연대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얼핏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를 하며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어. **핵심 화제를 제시하는 문장이야. 형광펜을 쳐놓자.**

그렇다면 이 글은 반드시 핵심 화제인 '신채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가 모순되지 않는 이유'를 다루게 될 거야. 이 지문을 읽고 반드시 머릿속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아가 '아'라는 개념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아둬야겠지? **핵심 화제와 관련된 정보는 언제나 필자의 의도이고, 문제 풀이의 핵심 단서가 될 테니까.** (이후 문제풀이 알고리즘에서 핵심 화제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여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야.)

이에 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의 비아'가 있고,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의 아'가 있음을 밝혔다. 그는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위를 보면 신채호는 '아(=조선민중)'가 '아 속의 비아(=친일파)'와는 투쟁하되, '비아 속의 아(=일본 내 제국주의 반대자)'와는 연대하자고 주장한 것을 알 수 있어.

이는 **핵심 화제를 구체화하는 문장이므로**, 문제 풀이의 핵심 단서일 거야. 따라서 밑줄을 쳐놓고, 반드시 머릿속에 박아놓고 갈 수 있도록 하자.

국어 영역

18세기에는 열의 실체가 **칼로릭(caloric)**이며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를 칼로릭 이론이라 부르는데, 이에 따르면 찬 물체와 뜨거운 물체를 접촉시켜 놓았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것은 칼로릭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자들의 큰 관심사 중의 하나는 증기 기관과 같은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였다.**

윗글에서는 '칼로릭'과 관련된 내용이 반복돼.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는 과학자들이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하며 궁금증을 유발하지.

그렇다면 이를 토대로 우리는 이 글의 핵심 화제가 '칼로릭',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열기관의 열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 방출할 때의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카르노의 이론을 증명하였다.

위는 지문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문장이야.

핵심 화제인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에 대해 구체화하는 문장이므로, 밑줄을 치고 머릿속에 꼭 박고 가도록 해야 해.

핵심 화제 제시

- 반복되는 내용 (동일한 의미의 어구/어휘가 반복)
- 궁금증을 유발하는 내용 (필자의 질문, 얼핏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 해결이 필요한 문제 상황, 모르는 개념 등)
- 표시 & 끝날 때까지 꼭 잡고 읽기

핵심 화제 구체화

- 핵심 화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제시하는 문장
- 밑줄 & 강하게 이해+기억

문제풀이

알고리즘 -3. 선지 OX 판단

- ▶ 선지 정보 관계 번역
- ▶ 추론과 서치
- ▶ 유형별 접근 전략

“국어 문제? 그냥 지문 읽고 대충 풀면 되는 거 아닌가?”

안정적 고득점을 위해서는
모든 상황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해.

문제 풀이도 예외는 아니야.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푸는 방법을 알고
습득해두어야 고득점이 완성될 거야.

국어 영역

서치하기란?

그런데 만약 확인해보니까 위 추론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떡할까? 혹은 추론을 통해 의심스러운 선지를 걸러내지 못한다면 어떡할까?

머릿속의 핵심 정보만으로는 정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야. 따라서 이제부터는 지문으로 돌아가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수집**해야 해. **이렇게 세부 정보를 지문에서 찾아내는 것을 '서치하기'라고 불러.**

가령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서치를 사용할 수 있어.

[알고 있는 핵심 정보]

모든 동물은 암컷과 수컷으로 나뉜다. 암컷과 수컷은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인다.

1.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암컷이 아닌 동물은 수컷이다.
- ② 수컷이 아닌 동물은 암컷이다.
- ③ 수컷 동물은 대부분 암컷에 비해 몸집이 작다.
- ④ 암컷 동물은 대부분 수컷에 비해 호전적이다.
- ⑤ 동물의 성격은 대부분 암수 성별에 상관없다.

위에서 핵심 정보를 통한 추론하기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①②가 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뿐이야.

그렇다면 ③④⑤를 판단하기 위해 지문으로 돌아가 관련 정보를 서치해야 해.

그럼 어떤 선지부터 서치를 검증하는 게 좋을까?

무작정 아무 선지나 서치하면 안돼.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거나, 그나마 답에 가장 가까워보이는 선지 먼저 서치하는 게 좋아.

위의 ⑤를 보자. 핵심 정보에서 '암컷과 수컷은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인다'고 했어. 그런데 ⑤는 이 핵심 정보와 살짝 어긋나. (물론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따라서 ⑤가 가장 답에 근접한 선지이고 나는 이 선지부터 서치하는 걸 추천해.

어떻게 서치하는 게 빠를까?

서치할 선지를 결정했다면 어떤 단어/맥락을 찾아야 할지 명확히 해야 해. 서치의 목적이 없으면 그만큼 헤매기 쉽거든.

⑤의 선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성격'과 관련된 단어/맥락을 지문에서 찾거나, '암수 성별에 상관없는 것들'과 관련된 단어/맥락을 지문에서 찾아야 할 거야. 이 점을 서치하기 전에 미리 명확히 해두자.

※ <추론/서치> 요약 ※

추론이란?

- 이미 알고 있는 핵심 정보만을 활용하여
- 정답 후보 최대한 추려내기

서치란?

- 남은 선지 중
- 가장 의심스러운 선지부터
- 지문의 세부 정보를 활용하여 판단

문제풀이

알고리즘 -4. 문제 검토/분류

- ▶ 정답 확인하기
- ▶ 문제 분류하기

“풀 때는 다 맞은 줄 알았는데 채점해보니 실수투성이네요..”
“두 지문 남았는데 종쳤네요..”

무서운 일이지? 하지만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야.
아무리 1등급 실력이라 해도 삐끗해서
3, 4등급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게 수능 국어거든.

어떻게 하면 국어에서 실수를 줄이고,
시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을까?

국어 영역

문제 분류하기

국어 시험에서 시간 부족은 사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수능 현장에서 경험하는 현상이야. 왜 국어 시험에선 유난히 시간이 많이 부족할까? 비슷한 상황을 수학 시험에서 생각해보자.

항상 수학 1등급을 받던 준이. 드디어 수능 날이 왔다. 그런데 웬걸?? 수학 시간 11분에서 갑자기 풀이가 막혔다. 정말 갑자기 관련 개념을 까먹었다!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지만 도통 생각이 나질 않는다. 시야가 흔들리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간다. 이 순간 준이의 선택은?

- ① ‘내가 이 개념을 까먹었을 리 없어!’ 그 개념이 생각날 때까지 문제를 붙잡고 늘어진다.
- ② ‘어따가 다시 보자!’ 일단 넘어가고 다른 문제들을 풀고 돌아와 다시 생각한다.

만약 개념이 끝까지 생각나지 않는다면? ①을 했다면 뒤의 문제까지 싹 다 못 풀겠지. 차라리 ②를 했다면 맞힐 문제는 맞힐 수 있을 거야.

시간이 너무 지체될 문제들은 일단 넘기고 나중에 돌아와서 풀기

모든 시험에서 명심해야 해. 그런데 유난히 국어 시험에서는 이 당연한 생각이 잘 지켜지지 않아.

안 풀리면 풀릴 때까지 늘어지고, 정답에 확신이 들 때까지 늘어지는 거지.

이해는 돼. 수학 시험이야 돌아와서 다시 풀어도 별 손해가 없지만, 국어는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하거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많은 학생들의 수능 폭망을 만드는 주범이야.

지금 당장 정답이 안 나오는 이유는 무언가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부분을 ‘못 읽었기’ 때문이거든. 결국 정답을 내려면 적어도 어느 부분은 다시 읽어야 해.

하지만 붙잡고 있으면 이게 쉽지 않지. 오히려 다른 문제를 풀고 refresh한 상태로 문제를 검토하면 정답이 쉽게 보이는 때가 많을 거야.

이를 위해 세운 전략이 1차 풀이 / 2차 풀이 전략이야.

일단 처음 풀 때는 60~70분간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풀며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들은 번호 위에 표시/분류하고 넘기자. (1차 풀이)

표시의 종류는 총 네 가지, ‘표시 안 함’, □표시, ☆표시, ☆☆표시’가 있어.

‘표시 안 함’은 말 그대로 표시를 안 하는 거야. 정답 확인이 확실해 되어 검토할 필요가 없을 때 아무 표시를 해놓지 말자. 대신 아무 표시 안 한 문제에서 오답이 나온다면 많이 반성해야 해.

‘□표시’는 선지를 끝까지 보지 않고 정답 확인이 된 문제에 하는 표시야. 만약 ②에서 너무 확실한 답이 나와 이후 선지를 확인 할 필요가 없다면 □표시하고 가는 거지.

‘☆표시’는 정답을 고르긴 했는데, 확인은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에 하는 표시야. 소위 ‘찜찜한 문제’지. 나중에 검토할 생각을 하며 ☆표 치고 넘어가야 해.

‘☆☆표시’는 진짜 못 풀겠는 문제에 하는 표시야. 시간이 정말 많이 남은 거 아니면 아예 손도 대지 말자는 표시지. 이런 문제는 오히려 찍는 게 정답률을 높일 수 있어.

표시 안 함	정답 확인까지 완벽하게 끝낸 문제
□ 표시	⑥까지 다 보기 전에 정답 확인한 문제
☆ 표시	정답 확인이 제대로 안 된 문제
☆☆ 표시	도저히 손 못대겠는 문제

이렇게 45문제의 분류가 끝나면 나머지 시간동안 표시한 문제들을 위주로 검토하면 돼. (2차 풀이)

보통 검토 순서는 ☆→□→☆☆로 하면 돼.

Q. 저는 1차 풀이하는 데에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2차 풀이할 시간을 절대 못 남기는데요?

첫째, 기본 실력 쌓기. 일단 기본 실력이 현저히 부족하면 뭘 할 수가 없어. 시간제한 없이 기출 해설 쓰기 학습을 진행하여 기본 실력을 쌓자.

둘째, 넘길 건 넘기기. 45문제 중 ‘최소’ 10~15문제에 별표